

[01~09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<경남의 품이 안녕>

(가) 열두 삼십 단을 이고

시장에 간 우리 엄마

안 오시네, 해는 서른 지 오래

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

① 아무리 찬밥처럼 숙제를 해도

안 오시네, 배춧잎 같은 ② 별초의 타박타박

금 간 청물으로 ③ 고요히 빛소리 = **한여름** **찬밥** **냉랭**

빈방에 혼자 있으며 **흔적** 거리던

아주 먼 옛날

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

④ 그 시절 내 유년의 빛물

(나) 나는 복판(復讐)에 혼자 남아누워서

아는 이름 의원을 보아왔다

의원은 여객(客) 같은 **차** 하고 관공(關公)의 수염을 드리워서

먼 옛저는 나와 친한 **간**으로 **가을**

세끼손톱 길게 뜯은 손을 내어

목목하니 한참 배를 집더니

문득 물이 고향이 어테나 한다

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다

그러던 **아무개 씨** 고향이란다

그러면 아무개 씨 아느냐 현측

의원은 반듯이 웃음을 띠고

백역지(白蟻之助)이라며 수염을 쓴다

나는 아버지로 삼기는 이리 한층

의원은 또 다시 던지지 웃고

발음이 땀을 집어 땀을 보는데

⑤ **순리** 은 파스하고 부드러워

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

1. 문화의 눈

04 <보기>에 제시된 시의 말하는 이와 (가)의 말하는 이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보기

전작(前作) 정터 생이물전에는

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전 어스름을 //

울 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

빛 발(發)하는 눈광들이 속절없이

은전(銀錢)만큼 손 안 닿는 현(現)이던가

울 임매야 울 임매 // 별 발은 또 그리 멀리 /

우리 오누이의 머리 머리 끝내 아 되어

순 시리가 떠먼가 순 시리게 발딘가 //

전작(前作) 남강(南江) 떠다 해도

오랫 거행 / 신세버나나 빚밧에 보는 것을,

울 임매의 마음은 어찌했음꼬,

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

말없이 길성이고 반짝이면 것인가.

- 박재삼 <추억에서>

01 (가)를 <보기>와 같이 바꿔 쓸 때 달라지는 시의 분위기들, <조건>에 맞게 서술하시오. [5점]

보기

③ 말하는 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. '나'로 **경남** 드러나 있음.

④ 말하는 이가 **찬밥** 상황이 표현되어 있다. **가을**과 **도나** 있음.

⑤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.

⑥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⑦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⑧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⑨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⑩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⑪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⑫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⑬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⑭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⑮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⑯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⑰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⑱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⑲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⑳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㉑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㉒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㉓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㉔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㉕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㉖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㉗ 과거의 자신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장서를 드러내고 있다.

07 (나)에 나타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대상을 실제보다 작게 표현하고 있다.

② 명사로 시를 끝맺어 여운을 주고 있다.

③ 직유법을 사용하여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. **눈** **눈**

④ 내용을 생략하여 표현에 변화를 주고 있다.

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.

08 (나)에서 **순리**의 역할을 <조건>에 맞게 서술하시오. [5점]

시어 내용 파악하기

①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②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③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④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⑤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⑥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⑦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⑧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⑨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⑩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⑪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⑫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⑬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⑭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⑮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⑯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⑰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⑱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⑲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⑳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㉑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㉒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㉓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㉔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㉕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㉖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㉗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㉘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㉙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㉚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㉛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㉜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㉝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㉞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㉟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㊱ '순리'의 역할 통해 드러난 시의 주제를 서술할 것.

시의 내용 파악하기
10 이 시의 사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과거 회상과 그에 따른 시작 장서가 나타난다.
- ② 사상의 구체적인 전환으로 화자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.
-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발하는 이의 심리 변화가 두드러진다.
- ④ 인물들의 대화로 사상이 전개되며 서사적인 특징을 보인다.
- ⑤ 처음과 끝에서 유사한 구조를 반복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.

정답: ⑤
정답에 정답이 있다.

시의 내용 파악하기
11 ㉠~㉢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 고향의 자연이 예전과 다름이 없음을 의미한다.
- ② ㉡ 정화하지 못하는 발하는 이의 마음을 빚던 대상이다.
- ③ ㉢ 변함없이 발하는 이를 받게 주는 자연을 나타낸다.
- ④ ㉣ 발하는 이의 씩씩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.
- ⑤ ㉤ 발하는 이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한다.

시의 내용 파악하기

12 이 시에서 발하는 이가 '고향'을 바라보는 관점을 <조건>에 맞게 서술하시오. [5점]

조건 1
• 시에 나타난 발하는 이의 상황을 제시할 것.
• 발하는 이는 고향을 ①로 바라보고 있다. 그 이유는 ② 때문이다.
•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.

① 부지런히 일하는, ② 내게 할 것임
③ 내게 돌아왔지만 내향(내향성)을 나타냄
[13-17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오늘날 또 우리 수첩이 막 조이었다. 내가 정신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를 때이었다. 산으로 올라가더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하고 땅의 햇소리가 아란이다. 잠깐 놀러고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눈이 또 열렸다.

잠순네 수첩은 대강이가 크고 꼭 오소리같이 실락하게 생긴 놈이 영적 작은 우리 수첩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.

(나) 나를 전 감자 조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.

계집애가 나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위는 데 땀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.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"애 너 혼자만 일하니?" 하고 긴지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. 아예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없고 서로 만나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장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날 감자스캐 대견해졌음은

원일인가. 향차 만이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.....

"그럼 혼자 하지 때문 하디?"

내가 이렇게 내뻐온 소리를 하니까 / "너 일하기 좋다?" 또는 / "한어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?"

전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.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들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.

(다) 계집애가 조금 위에는 제 짐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쥔 바늘손을 뺏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붙박 대며는 것이다.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감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새 개가 손에 뭇뚱이 쥐었다. / "느 집엔 이거 없지?"

하고 생애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내가 준 것을 남이 일면 돈일 남 데니 여기서 알뜰 먹어 버리란다.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

"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." / "난 감자 안 먹는다. 나나 먹어라."

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들을 도로 어깨 너머로 쏙 밀어 버렸다.

그랬더니 그대로 가는 기계이 없고, 뿐만 아니라 세근세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. 이런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.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아직껏 거무잡잡한 잠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상무척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.

(라) 그런데 그와함 그 활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참아 버리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.

잔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, 주면 그냥 주었지 "느 집엔 이거 없지?"는 다 뭐냐.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채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살거린다.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돌아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잠순네의 호의였다.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배 양식이 달리면 잠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을 다시 없으리라고 참이 마르도록 청찬하곤 하는 것이다. 그러면서도 열일곱살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불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. 왜냐하면 내가 잠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는 잠순네가 노할 것이고, 그러면 우리는 땅도 멀어지고 집도 내뺏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.

13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재차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. '봄 감자'
- ② 역순형적 구상 방식을 취하고 있다. '봄' → '나' → '고향'
- ③ 갈등을 중심으로 사선이 전개되고 있다. '잠순이'와 '나의 갈등'
- ④ 토속적인 어휘로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. '땅, 햇소, 감자' 등.
- ⑤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. X

서술자의 특징 파악하기
14 이 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아주 특별한 인물로 서술자로 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. '하마'
- ② 냉정한 인물을 서술자로 하여 비판적 시각을 유도하고 있다.
- ③ 낙관적인 인물로 서술자로 하여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.
- ④ 무가치한 인물로 서술자로 하여 시대적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.
- ⑤ 합리적인 인물로 서술자로 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.

인물의 성격 파악하기

15 (다)에 나타난 잠순이의 심리 변화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실패 → 분노
- ② 실패 → 냉정
- ③ 행복 → 기대
- ④ 행복 → 의심
- ⑤ 의심 → 행복

서술자의 특징 파악하기

16 (라)를 <보기>와 같이 바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<조건>에 맞게 서술하시오. [5점] (서술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)

보기 1
잠순이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하자 순돌이에게 앙심을 할 기회를 엿보았다. 하지만 순돌이는 그녀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. = 잠순이 각자가 서정

조건 1
•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할 것.
•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.

→ 독자가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심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.

17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사어를 찾아 두 어절로 쓰시오

문장: '순돌이' → '순돌이'와 '순돌이'의 차이
답: '순돌이'와 '순돌이'의 차이

[18~22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채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살거린다. (중략) 그러면서도 열일곱살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불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. 왜냐하면 내가 잠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는 잠순네가 노할 것이고, 그러면 우리는 땅도 멀어지고 집도 내뺏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.

(나) 필연코 요런이 나의 악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잡아대다가 내가 내리를 갈목에다 씹을 시작 하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틀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.

나는 양이 오를 때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뿜 쏟아졌다. 나부 지게도 벗어 놓 새 없이 그대로 내뿜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.

기꺼이 와 보니,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첩이 피를 흘리고 거의 반사지경에 이르렀다. 닭도 닭이러니와 그라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불에 더욱 치가 떨린다.

(다)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첩을 [단배]로 때려 었었다. 닭은 쪽 앞이진 채 다리 하나 꺾어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. 그리고 나는 멍하니 있다가 잠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타치는 바람에 쿨로 벌렁 나자빠졌다.

"이놈아 너 왜 닭의 닭을 때려죽이니?" / "그럼 어때?" 하고 일어난다. / "뭐 이 자식이 누 집 얹었네?"

하고 북장을 때리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.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슴슴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㉠ 인젠 뭘이 벌어지고도 집도 내뺏기고 왜야 될는지 모른다.

(라)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열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. 그러다 잠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

"그럼, 너 이따부럼 안 그럴 터냐?"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기를 찾은 듯싶었다.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뿔 안 그려는지 명색도 모르건만.

"그래!" / 하고 무뎠다고 대답하였다.

"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,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냐."

"그대 그대 인젠 안 그럴 테어?"

"닭 죽은 건 엄려 마라. 내 안 이를 테니."

그리고 뒤편에 떠다말았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뺏 피드러진다. 그 바람에 나의 몸통도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다

노란 [문배꽃] 속으로 꼭 파묻혀 버렸다

알려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떨어졌다. / "나 알 마라." / "그대!" /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/ "잠순아 잠순아 이년이 마느꼐를 하다 말구 아덜 갖어!" 하고 어덜 갖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성이 대면해 왔다. 잠순이가 잠을 잔듯 잠이 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솟아 올 수 없었다.

18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잠순이는 '나의' 닭을 잡아내어 싸움을 붙였다.
- ② '나는' 잠순이의 행동에 이상을 잃고 행동한다.
- ③ '나는' 잠순이가 닭싸움을 거는 이유를 잘 모른다.
- ④ 잠순이의 어머니는 잠순이와 '나의' 사이를 반대한다.
- ⑤ 잠순이는 닭을 죽인 '나'에게 신분 차이를 확인시킨다.

→ 마음과 생각은 다르다는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. "어제 생각해"라고 대답했다.

19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'나의' 순박한 태도가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.
- ② 잠순이와 '나의' 갈등이 진행되는 모습이 흥미진진했다.
- ③ 닭싸움을 통해 잠순이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 재미있어.
- ④ 생생한 구어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실감 나게 그려 냈어.
- ⑤ 기난한 농촌 생활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.

20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?

- ① 버들이 소작농의 삶과 연관
- ② 본래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
- ③ 사춘기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
- ④ 순박한 아이들의 농촌 생활 적응기
- ⑤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족 붕괴

21 [단락]의 역할을 <조건>에 맞게 서술하시오. [5점]

[주제]

- 작품의 갈등과 관련된 '단락'의 역할 제시할 것.
- 연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.

→ 단락은 갈등을 조성하여 갈등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.

2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.

'나'가 '나'가 생각하는 이유는 잠순이는 (마음) 의 딸이고, '나의' 가족은 (비밀) 을 숨겨 있어 명을 부르기 때문이다.

→ 마음 비밀

23 <보기>는 (라)의 서술자를 잠순이로 바꾸어 쓴 것이다. 이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보기]

- ① 순둘이는 비둘이를 잡아내려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.
- ② 순둘이의 울음에 나는 더욱 화가 났어. "엄마, 나 이따가부터 안 그럴 테니까 하고 울었다."
- ③ 그제서야 그는 눈물을 닦으며 각지에서 벗어난 표정으로 "그래"하고 대답했다.
- ④ 다음부터는 내 마음을 가질하지 말라는 뜻의 말을 들려서 말했다.
- ⑤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둘이는 다시는 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. 그 말을 듣고, 나도 닭 죽은 것을 부모님께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.

24 이 글에서 '동백꽃'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작품의 상징성을 높인다.
- ② 새로운 갈등을 암시한다.
- ③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.
- ④ 향토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.
- ⑤ 인물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.

[25-27] 다음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오늘도 다 세웠다 호미 메고 가자라
네는 다 메어든 네는 호미 메고 가자라
울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어 뽕이라

25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말하는 이는 청유형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.
- ② 말하는 이는 듣는 이에게 근면한 생활을 강조한다.
- ③ 눈을 메고 누에를 기르는 농민의 모습이 나타난다.
- ④ 말하는 이는 듣는 이에게 부지런히 일 할 것을 권유한다.
- ⑤ 말하는 이는 듣는 이를 고려하여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.

26 이 시조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듣는 이 없이 말하는 이의 독백이 두드러진다.
- ② 말하는 이는 듣는 이보다 높은 신분인 사람이다.
- ③ 말하는 이는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.
- ④ 말하는 이는 듣는 이에게 서로 도움을 권하고 있다.
- ⑤ 말하는 이는 이러한 반박을 다시 반복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.

27 이 시조를 <보기>와 같이 바꾸어 썼을 때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[보기]
오늘도 다 세웠다 호미 메고 가자라
지기는 다 메어든 다른 사람의 눈 호미 메고 가자라
울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어 뽕이라

- ①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.
- ② 말하는 이가 듣는 이와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.
- ③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명령하고 재촉하는 느낌이 난다.
- ④ 바꾸어 쓰기 전보다 듣는 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.
- ⑤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한계 열심하 해 보장고 말하는 느낌이 난다.

